

- **주요 뉴스:** 미국 백악관 지역은행 부실 전이 우려 일축, 트럼프 대통령 마-중 협상 낙관
 - 연준 주요 인사, 노동시장 추가 위험 부각 시 10월 금리인하 지지
 - S&P, 프랑스 국가신용등급을 AA-에서 A+로 강등. 재정 불확실성 반영
 - 중국 정부, 재정수입 개선(9월 +2.6%). 지방정부 부채 해결 노력 지속
- **국제금융시장:** 미국 지역은행 부실 전이 및 마-중 갈등에 대한 우려가 일부 완화
 - 미국 주가 상승[+0.5%], 달러화 강세[+0.1%], 금리 상승[+4bp]
 - **주가:** 미국 S&P500, 마-중 협상 진전 기대, 여타 지역은행 실적 호조로 상승
유로 Stoxx600은 전일의 미국 지역은행 부실 우려를 반영하면서 0.9% 하락
 - **환율:** 달러화지수는 미국 지역은행 우려가 다소 진정되는 가운데 소폭 상승
유로화는 미 달러화 대비 0.3% 약세, 엔화는 0.1% 약세
 - **금리:**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안전자산 수요 둔화 등으로 4%대로 반등
독일은 마-중 갈등 우려 완화를 주로 반영하면서 1bp 상승

※ 뉴욕 1M NDF 증가 1419.45원(스왑포인트 감안 시 1421.7원, 0.04% 상승). 한국 CDS 보합

		10.17일	10.16일	전일대비			10.17일	10.16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6,664.0	6,629.1	+0.53%	국채 금리 10y	미국	4.01%	3.97%	+4bp
	유럽	566.24	571.66	-0.95%		독일	2.58%	2.57%	+1bp
	중국	3,839.8	3,916.2	-1.95%		영국	4.53%	4.5%	+3bp
	일본	47,582	48,278	-1.44%	CDS 5y	한국	24bp	24bp	+0bp
	한국	3,748.9	3,748.4	+0.01%		중국	45bp	45bp	+0bp
환율	달러지수	98.43	98.34	+0.10%	위험 지표	EMBI+	291	294	-3bp
	유로화	1.1655	1.1687	-0.27%		VIX	20.78	25.31	-17.90%
	엔화	150.61	150.43	-0.12%		WTI유	57.54	57.46	+0.14%
	위안화	7.1270	7.1246	-0.03%	원자재	구리	497.0	499.9	-0.59%
	원화	1,421.2	1,417.9	-0.23%		금	4,251.8	4,326.6	-1.73%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백악관, 지역은행 부실 전이 우려 일축. 트럼프 대통령, 미-중 협상 낙관

- 국가경제위원회(NEC) 해쉬 위원장, 은행들이 충분한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어 신용 시장이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^{“We can stay ahead of the curve”}이라고 언급
 - Moody's는 은행 시스템 전반의 신용 사이클, 자산 건전성 지표 등을 볼 때 금융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전이^{contagion} 현상은 뚜렷하지 않다고 진단
 - 다만, Citi는 금번 지역은행 부실은 규모 등의 측면에서 전이 위험이 낮으나 우려되는 점은 “알려진 손실”이 아닌 “알려지지 않은 부분”에 있다고 지적
- 트럼프 대통령, 중국에 대한 100% 관세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발언하면서 그 책임을 중국으로 전가^{“They forced me to do that”}. 2주 내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및 향후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긍정적인 어조로 언급^{“I think we'll be fine with China”}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연준 주요 인사, 10월 정책금리 인하 지지

- 세인트루이스 연은 무살렘 총재, 금리인하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만 노동시장에 추가 위험이 부각되고 물가상승률이 목표치를 지속적으로 상회할 위험이 억제되며 인플레이션 기대가 잘 고정된다면 정책금리 추가 인하를 지지할 수 있다고 발언

■ S&P, 프랑스 국가신용등급을 AA-에서 A+로 강등

- '26년 예산안 초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으나 '27년 대선을 앞두고 프랑스 재정에 대한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며, 상당한 수준의 적자 감축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 한 재정건전화가 더디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을 근거로 제시. 정부부채 규모(GDP 대비)를 '28년말 121%로 예상하면서 전망보다 악화 시 추가 강등을 시사

■ 유로존 9월 CPI 상승률, 전월 수준 유지. ECB 정책위원, 금리인하 지지

- Eurostat이 발표한 유로존 9월 소비자물가(CPI) 상승률 확정치는 +2.2%*로 예비치(+2.2%)와 같은 수준을 기록. 서비스업(+1.5%p)이 물가 상승을 주도했으며 식품·주류·담배(+0.6%p)도 기여. 근원 CPI 상승률은 +2.4%로 전월(+2.3%) 대비 상승

* 독일 +2.4%, 프랑스 +1.1%, 이탈리아 +1.8%, 스페인 +3.0%, 네덜란드 +3.0% 등

- 심쿠스 정책위원(리투아니아)은 독일 산업 부진, 프랑스 정국 불안에 따른 성장 둔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임금 상승세도 감속되는 등 성장과 물가 모두 하방 위험이 우세하다고 진단하면서 위험관리 차원에서 정책금리 추가 인하를 선호한다고 발언

■ 중국 정부, 재정수입 개선. 지방정부 부채 해결 노력 지속

- 재정부가 발표한 9월 재정수입 증가율은 +2.6%로 전월(+2.0%) 대비 확대. CCTV (중국국영언론)는 경기회복 및 기업실적 개선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도. 한편, 리다웨이 순시원^{특차관보}은 최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부채한도를 5,000억위안 추가 배정했으며 이를 선집행해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^{hidden debt} 교환 등에 사용할 계획임을 발표

■ 영란은행(BOE) 통화정책위원, 금리인하 감속 필요성 언급

- 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경제·물가 전망이 통화정책위원회의 예상대로 전개될 경우 내년 중 정책금리 추가 인하가 예상되나, 영국 경제에 여전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고착되어 있다는 점을 시급히 인식해야 하며, 2%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통화정책 완화 속도를 보다 신중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

■ 러시아산 원유 수입 감축 여부를 둘러싼 미국-인도 간 입장 불일치

- Reuters는 익명의 관계자들을 인용해, 미국 측의 주장*과 달리 인도 정유업체들은 아직 정부로부터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줄이라는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보도. 이미 11월 선적분과 12월 인도 도착분에 대한 주문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러시아산 원유 수입 감축 움직임은 12월~1월 수입 통계에서 확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언

* 백악관 관계자, 인도 정유업체들이 이미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50% 줄이고 있다고 발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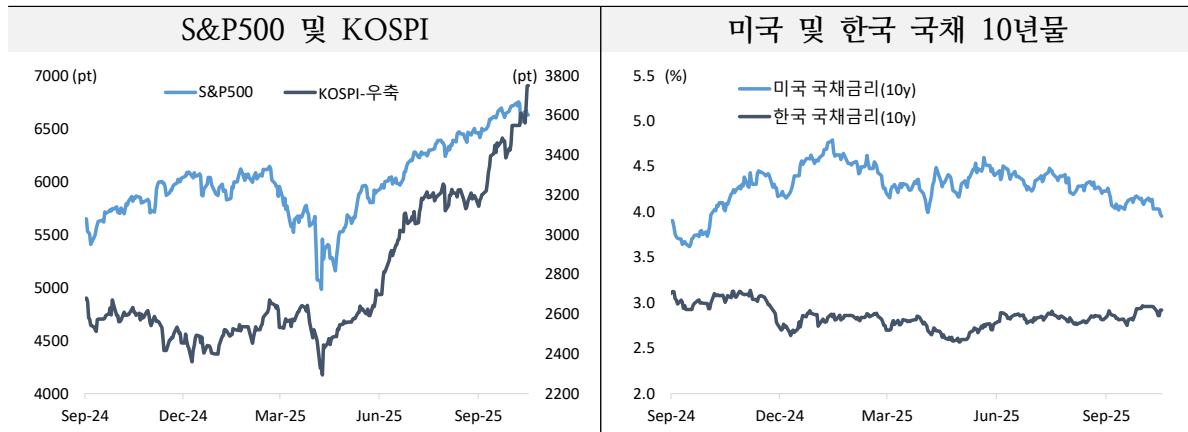
■ 말레이시아 3분기 경제, 예상(+4.2%)을 웃도는 높은 성장률 기록

-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GDP 성장률 예비치는 +5.2%로, 2분기(+4.4%)에 비해 성장세가 강화. 서비스업(+5.1%)·제조업(+4.0%)이 고른 성장세를 보였으며, 특히 광업 및 채석업(+10.9%)과 건설업(+11.2%)은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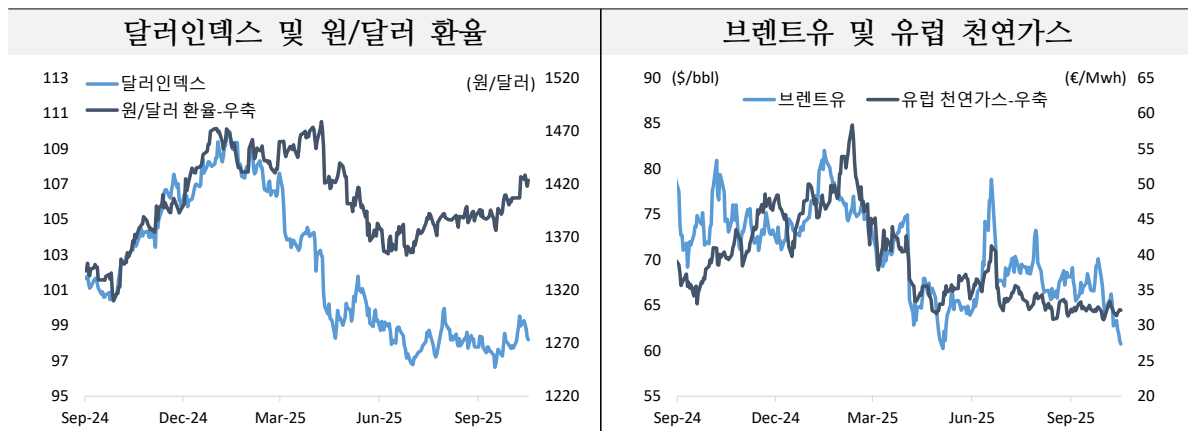
주요 경제·금융 이벤트

- 중국 3분기 GDP 성장률(+4.7%_{yoy}), 9월 산업생산(+5.0%_{yoy}) 및 소매판매(+3.0%_{yoy}), 독일 9월 생산자물가 상승률(-1.4%_{yoy}, 이상 블룸버그 서베이) 등 경제지표 발표
- 중국 제20기 4중전회(~23일), 중국인민은행 1년물(3.0%)·5년물(3.5%) 대출우대금리 LPR 결정, ECB 슈나벨 이사, 나겔(독일)·부이치치(크로아티아) 정책위원 연설(10.20일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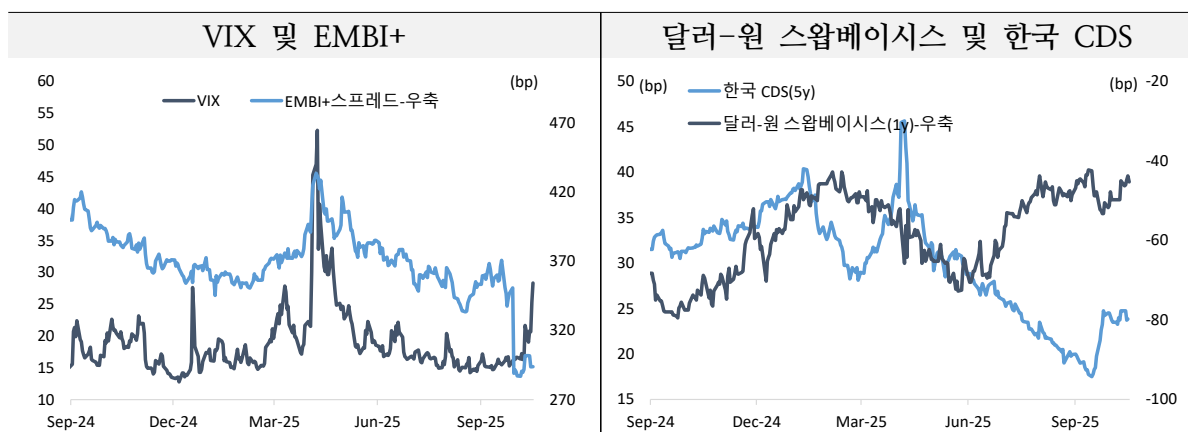
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11, E-mail swlee@kcif.or.kr